

협회행사 보고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2002년 동계 세미나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2002 동계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학도서관의 현황과 발전 방안 제고"에 대해 발표한 황명길 고려신학교 과장은 기존의 '신학'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는 순수 신학대학교 도서관 중에 학부대학, 대학원대학교, 학부&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분석과 이들 도서관에 대한 구성요소인 자료, 인적자원, 시설 정보화, 이용서비스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그 대책과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하여" 발표한 한복희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직은 이용자와 인류의 문화유산인 공적인 문헌물과 총체적인 지식을 중재하는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전제하면서, 우선 사서직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가장 적절한 제공처로부터 받은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정보전문가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서로서의 신념과 사회환경과 정보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신학분야 해외학술지 공동개발 및 이용"에 대해 발표한 전해영 동아대학교 사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자료의 접근성, 자료의 경제성, 업무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용율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외국 학술지의 다

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이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외국 학술지를 이용한 참고봉사의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분담 수서, 분담 보관, 공동목록, 정보서비스 제공 협력 등을 통하여 각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저널의 경우 다량의 잡지를 한 대학에 담당하기에는 예산상 규모가 크므로 킨소시엄 형태의 수서 정책을 채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신도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영어권 해외저널 개발, 소장 해외학술지 분담 원문구축, DB 표준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 번째로 강덕선 총신대학교 과장은 "장서점검에 관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장서점검은 자주 시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도서관의 장서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총신대 도서관의 실제 장서점검 업무를 모델로 하여 장서점검의 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가 읽기, 자료 스캔,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실 자료 추출 등의 과정을 간단한 장서 체크 유틸리티를 개발하여 스캔 결과에 따라 문제의 자료를 추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대신 스캔과 동시에 현장에서 데이터 및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로 서가 배열의 문제, 자료의 데이터가 상이한 문제, 이중 등록, 청구기호 오류 등의 문제로 처리하는 시간과 노력에 상당한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강조한다. 빔 프로젝트 시연을 통해서 장서점검 전 과정을 확인하였고, 장서점검 유틸리티를 원하는 회원교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사서를 위한 전산이해 : 회원교 Gateway 구

축"에 대해서는 이패스 김상권 대표가 발표하였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컴퓨터 및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접근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강의에서 김 대표는 전산자원의 효율 제고를 위해 전산에 대한 친화성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전산 전반에 걸친 흐름과 컴퓨터 환경 이해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도서관과 전산자원의 공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해, 디지털 통신과 LAN, 사서와 전산의 관계성 등이 소개되었고 이와 관련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여섯 번째로 이두영(한국학술정보)은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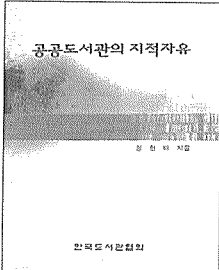
전송권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은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저작권의 일종인 출판권과 전송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재 인쇄물로 출판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과 전송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송권과 관련한 전자책(e-Book) 컨소시엄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개진되었다. (정리 : 신만섭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부회장)

알림

도서관문화를 통해 행사소식을 상세히 알고 싶은 도서관·단체·개인은 도서관문화 편집실로 행사보고서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원고 매수는 5~10매 이내로 해주십시오.

- * 전화 : 02-535-4868
- * 전송 : 02-535-5616
- * E-mail : klanet@hitel.net
-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 * 담당 : 심효정

신 간



신국판/반양장/176쪽
ISBN 89-7678-058-2
정가 8,000원
회원보급가 6,400원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정현태 지음

특 차

- '도서관 지적자유'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이용자 지적자유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